

보도시점 2023. 12. 26.(화) 석간 배포 2023. 12. 22.(금) 15:00

#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IS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ISSB의 첫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S2(기후) 기준을 번역하여 공개

## 1. 추진 배경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2.3월 일반 및 기후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3.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 \* IFRS재단 :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 \*\*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1.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최근 미국, 유럽(EU)을 비롯한 영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국가들이 이번에 확정된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 미국 SEC는 '22.3월 기후공시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진행(최종안은 아직 미확정), EU ESRS는 ISSB 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등에서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기준을 제정하는 계획을 발표(회계기준원)
  - ESRS :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ISSB 기준 개요

- ① (제정주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 ② (기준공표) '23.6월, 첫 번째 기준인 IFRS S1 및 S2를 발표
  -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
- ③ (기준구성) IFRS S1 및 S2 기준서, 기준서별 결론도출근거 및 부속지침 [예시지침 및 예시사례, (S2의 경우) IFRS S2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
- ④ (기준내용)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S2]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

국내의 경우에도, '23.10월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동향 및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 의무화를 '26년 이후로 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IFRS S1 및 S2)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하게 되었다.

-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지난 '21.11월 및 '23.1월 두차례에 걸쳐 SASB 기준\* 일부에 대해서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한 바 있음
  - \* SASB 기준 : '18년 美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한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2. ISSB 기준 번역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은 IFRS재단과 번역 계약을 맺고 ISSB 기준의 국문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23년도 하반기 중 IFRS S1·S2 기준서와 결론 도출 근거 및 이를 지원하는 부속지침 번역을 진행하였다.

#### ISSB 기준 번역 대상 개요

- (IFRS S1 기준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 요구사항으로 문단 1~86 및 부록 A~E로 구성되며, 모든 문단(부록 문단 포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
- (IFRS S2 기준서) 기후 관련 공시로 **문단 1~37** 및 **부록 A~C**로 구성되며, 모든 문단(부록 문단 포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
- (IFRS S1 및 S2의 결론도출근거)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상 맥락을 제공
- (IFRS S1 및 S2의 부속지침) 예시지침 및 예시사례로 구성된 비강제 지침으로서, ISSB 기준 적용상 편의를 제공. (단, S2의 부속지침 중 IFRS S2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은 '24년도 중 번역 예정)

(☞ IFRS S1 및 S2 국문 번역 통합본 : 별첨 1, 별첨 2)

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 25일 ISSB 기준 **번역본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국제 기준제정기구**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시 요구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국내 의견 수렴**을 통한 번역본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21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마련·공개하였다. 국문 번역본 전체 문서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IFRS재단 및 ISSB,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호주회계기준제정기구(AASB),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모임(AOSSG) 등
-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지속가능성 기준 > 기준

이번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발표를 통해,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더불어 ISSB 기준의 내용과 상호운영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기준 (예: EU ESRS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회계기준원은 이번 1차 번역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기후 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기준원은 '24년 중 ISSB가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지침 등의 교육자료\*도 번역하는 한편, EU EFRAG\*\*와의 논의를 통해 ESRS의 번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 \* (예) 기후 관련 위험·기회의 자연·사회적 측면에 대한 교육자료 발표, 상호운용성,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관련 교육자료 개발 중, 위험·기회 식별과 GHG 배출량 측정접근법 등 자료 개발도 고려 중
- \*\* EU EFRAG :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 ※ (별첨) 1.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본 최종안 통합본
  -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번역본 최종안 통합본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영대 (02-2100-2681)
<공동>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책임자	실 장	이웅희 (02-6050-0178)
		담당자	팀 장	윤나영 (02-6050-0180)





참고

##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 1.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룸
- □ (적용범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 및 보고할 때 적용
- □ (개념적 기반)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개념적 기반으로, 공정한 표시, 중요성, 보고기업, 그리고 연계된 정보 개념을 제시
  -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중요성)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거나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임
  - (보고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정의함
  - \* 즉, 연결실체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또한 **연결** 실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연계된 정보) 정보가 관련된 항목 간 연계\*와 기업이 제공하는 공시 간 연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예: 기업에 노출된 두 가지 서로 다른 위험 간 관계
  - \*\* 예: 핵심요소 간 연계,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와 재무제표와의 연계
- □ (핵심요소)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따른 정보 공시를 요구
  - (거버넌스)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전략)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기업이 식별한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전략 및 의사결정', 그리고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 \* 현재 재무적 영향뿐만 아니라, 단·중·장기에 걸쳐 미치는 예상 재무적 영향 모두 공시해야 함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예: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력에 대한 평가)
- (위험관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sup>\*</sup>
- \* 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그리고 법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 포함
- □ (일반 요구사항) 지침의 원천, 공시의 위치, 보고시기, 비교정보 및 준수 문구와 관련한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
  - (지침의 원천) 위험 및 기회의 식별과 적용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의 식별 시 고려해야 하는(할 수 있는) 지침의 원천 제공
  - (공시의 위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제공
  -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나 그 밖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다양한 위치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음
  - 단, 기업이 제공하는 **다른 정보와 구분**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 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보고시기)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 보고기간에 대해, 동시에 보고해야 함
  - (비교정보) 보고기간 공시되는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해야 함\*
  - \* 단, 경과규정을 통해 기준 적용 첫해에는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
  - (준수 문구)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 준수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음
  - \* 단,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이나 규제에서 특정 공시를 '금지'한 경우, 공시 면제가 허용됨
- □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공시 정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판단과,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

○ 또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시된 과거기간에 대한 비교값의 재작성을 통해 중요한 전기오류를 수정해야 함 □ (시행일) 20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조기적용이 허용됨) ○ (경과규정) 기준서 적용 첫해에는 <sup>●</sup>비교정보에 대한 미공시, <sup>②</sup>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발표 시점 공시, 8모든 사안이 아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만 공시하는 것이 허용됨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목적)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 □ (적용범위)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공시에 적용 □ (거버넌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2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 ㅇ 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감독이 기후 사안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통합된 거버넌스의 공시 가능 □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2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전환 계획 정보 포함) 3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4 미치는 현재 재무적 영향과, 단·중·장기에 걸쳐 미치는 예상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변화, 전개상황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전략과 사업모형의 기후 회복력 □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

  2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3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하는 범위와 방식
- 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감독이 기후 사안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통합된 위험관리의 공시 가능**
- □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① (산업전반 지표 범주) 산업 및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은 다음의 일곱 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함

1	온실가스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측정 접근법 관련 상세한 정보 등
2	기후 관련 전환 위험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b>취약한 자산</b> 또는 <b>사업활동</b> 의 금액 및 백분율
3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b>취약한 자산</b> 또는 <b>사업활동</b> 의 금액 및 백분율
4	기후 관련 기회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b>자산</b> 또는 <b>사업활동</b> 의 금액 및 백분율
5	자본배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하여 배치된 지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 금액
6	내부 탄소 가격	기업이 사용하는 <b>내부 탄소 가격</b> 과 이를 <b>의사결정</b> 에 적용하는 방식
7	보상	경영진 보상에의 기후 관련 시안 고려 여부와 방식 및 연계된 보상의 백분율

- ② (산업기반 지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산업기반 지표를 공시해야 함('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 고려)
- ③ (기후 관련 목표)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양적 및 질적 목표,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를 공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포함함
  -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는 기업의 접근법에 대한 정보 및 목표에 대한 진척도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함
- □ (시행일) 20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조기적용이 허용됨)
  - (경과규정) 기준서 적용 첫해에는 <sup>1</sup> 비교정보에 대한 미공시, <sup>2</sup>기존 온실 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계속 사용, <sup>3</sup>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미공시가 허용됨